

疾病退治에 精進

~상호 유기적인 유대하에~

<대한의학협회장> 명 주 완



오늘 뜻깊은 大韓看護協會 第36次定期總會에 參席하여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現在 醫學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던 黎明期인 1913년에 이미 創設되었던 貴協會가 連綿한 전통을 이어 오면서 半世紀에 걸쳐 長足の 發展을 거듭하는 동안 對內的으로는 會員間의 親睦도모 내지 學術研磨에 힘쓰는 한편 對外的으로 國民保健 向上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致賀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알기로는 貴協會가 創立초기에는 數名의 美國宣敎看護員들과 協同으로 發起되어 運營되어 온 줄 압니다마는 封建主義 殘滓가 가지지 않았던 當時 開明期에 있어서 우리 社會 女性運動을 forefront에서 「리드」했던 貴協會가 海外 先進國看護團體와 긴밀한 유대를 거듭한 공적은 看護協會 發展史에 단 局限될 것이 아니다 開花期의 女性運動에 있어서 燄불을 높이 들었다는데도 意義가 큰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貴協會는 最近 산하단체들의 處우개선등 權益伸張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組織活動을 通해 一般 社會로부터 看護員들의 地位를 向上시켰으며 政府機關에 看護事業 部署가 常設되었으니만큼 政府事業에 積極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活動은 國家發展 및 國民保健 向上에 莫匹한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本人이 소속되고 있는 大韓醫學協會와는 바늘과 실처럼 불가분의 關係에 있는 터이므로 相互 有機的인 유대하에 서로 協助하면서 우리들 全體 醫療人들에게 맡겨진 國民保健向上과 疾病退治에 精進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貴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빌면서 이단 祝辭를 대신하겠습니다.